

■ 오늘 수능...이것만은 명심

수험표·신분증 꼭 챙기고  
도시락은 가벼운 음식으로

드디어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이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 때 받은 전자기기 소지 금지 등이 담긴 '수험생 주의사항'을 잘 지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험표와 신분증, 오답·오점정리노트 등을 꼭 챙기고,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의 경우 시험방법을 사전에 숙지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입시전문 업체 진학사의 도움으로 수능 당일 기상에서부터 시험 종료까지 유의사항을 살펴봤다.

▷기상→시험장 도착 전=시험 당일 입맛이 없더라도 반드시 아침식사는 챙긴다. 평소 즐겨먹는 음식으로 먹고, 부드러운 국물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점심 도시락을 싸간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음식으로 준비하도록 한다.

복장은 평소 즐겨 입는 최대한 편안한 옷이 좋다. 긴장감으로 인해 체온변화가 심할 수 있으므로 얇고 가벼운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야만 입고 벗기가 편하다. 늦잠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 주위에 있는 경찰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고사장 도착→시험 시작 전=올해는 수능 응원이 금지돼 있지만, 만약 시험장 앞에 응원부대나 학부모들이 있다면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차분하게 시험실로 입장한다. 시험 시작 전 미리 준비해 간 오점정리 노트를 통해 다시 한번 중요내용을 점검하고 마음을 차분히 정리한다.

▷시험시작→시험 종료=답안지를 받는 순간 인적사항, 선택과목, 문제유형 등을 표기해둔다. 시험지도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고, 잘못 읽거나 쉬운 문제를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답을 밀려 쓰거나 답겨 쓰는 일이 없도록 문제지 번호와 답안지 번호를 체크한다.

까다로운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럴듯한 답 2개를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본다. 시험 종료 알람이 울리면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종료 10분 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해야 한다. 쉬운 시간에는 정답을 맞춰보기 보다 다음 시간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진학사 김희동 입시분석실장은 "시험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험 당일 수험생 지침을 지키지 않아 성적이 무효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미리 지침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수능 예비소집... 광주 화정중 현장 스케치

“신종플루? 걱정할 거를 없어요”

형식적인 발열체크 일부 수험생 불만  
최고령 67·최연소 14세

“신종플루요? 그런 걱정할 시간있으면, 오답노트 한번 더 보겠네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광주 화정중학교 운동장.

광주지역 검정고시 출신자와 타시·도 졸업생 875명의 예비소집 열린 이곳에선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험생을 9줄로 세워놓고 고막형 체온계로 발열체크가 한창이었지만, 학생들의 눈빛에선 수능에 대한 각오만이 넘쳐났다. 마스크를 쓴 수험생도 간간히 눈에 띈 뿐이었다.

지난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수능에 도전한다는 오모(21)씨는 “지난 2년동안 수능 대비에 최선을 다해온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신종플루에 대해선 “수험을 맞춰보기 보다 다음 시간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고 말했다.

이날 예비소집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수험생도 “수능 성적에 대한 공포는 있지만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은 “언론이나 정부에서 신종플루에 대해 너무 호를 갈을 떨고 있는 듯 하다”면서 “오늘 발열체크도 시간만 소비할 뿐 형식적

이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예비소집장에선 발열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일부 발열검사자들은 학생들에게 건강상태를 물을 뒤 발열체크를 건너뛰는가 하면, 발열 검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0여명의 학생이 발열체크 없이 그대로 수험표를 받아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 예비소집장에서 발열체크를 한 결과, 신종플루 감염 등으로 수능을 별도 시험실에서 치를 수험생은 광주 57명, 전남 148명 등 205명으로 집계됐다.

분리시험실 감독관 자청

○광주시교육청 봉청 교육과 과장 4명이 신종플루 수능 특별분리시험실 감독관을 자청하고 나섰다. 교육정책과 정필연 과장을 비롯해 박종국 교원정책과장, 박병철 과학기술정보화과장, 박진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동아이고, 광덕고 등에서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일선 교사들이 분리시험실 감독관 배치를 꺼려하고, 자원자도 그리 많지 않았다는 소식에 과장들이 모범을 보이자는 뜻에서 감독관을 자청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에서 올 수능 수험생 중 최고령은 67세, 최연소는 1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범송한(61)씨가 최고령, 강진원(14)군이 최연소였으며, 전남에선 목포에 사는 이병윤(67)씨와 여수에 사는 김진숙(14)양이 각각 최고령, 최연소였다.

해경 도움 예비소집 참석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여수의 한 섬 지역 수능 수험생들이 해경의 도움으로 예비소집에 가까스로 참석했다. 여수해경은 11일 여객선 운항이 끊겨 여수 모교 수험생 10명이 육지학교에서 열린 예비소집에 응할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합정 1척을 긴급 파견, 인솔교사 등 모두 15명을 여수로 수송했다.

박시장 “실력광주 잇길”

○박광대 광주지사가 11일 광주 지역 수험생들에게 ‘실력 광주’의 전통을 이어가길 당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은 이날 “여러분의 선배들은 5년 연속 수능 평균성적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4년제 대학 진학률도 1위를 기록했다”면서 “올해도 평소 실력대로만 시험을 치른다면 ‘실력 광주’의 전통을 이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시험 잘 보세요... 광주·전남 날씨 정보와 시험장 주변 날씨, 파고, 강수량 등 상세 정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정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5·18 묘지 관리소장 인선 또 연기

적임자 못 찾아...공석 가능성

20일까지 재공모... 1차 공모 당시 2명이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최종 탈락했다. 5·18 민주묘지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도 5·18 민중항쟁에 대한 전문성이나 변화관리능력, 능동한 외국어 실력 등을 갖춘 인물이 적임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응모자들 중에 합당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응모자들은 서류심사를 거쳐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에서 면접을 거쳐 소장 적격 여부를 판정 받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전 관리소장인 박경순씨 타계 이후 지난해 네 차례 김병현 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9일~10월 6일까지 공모를 거쳐 11월 초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결국 재공모한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반달곰 행동반경 암컷이 더 넓다”

멸종위기종센터 신청사 개소

북원발전방향 국제 심포지엄

지리산에 방사돼 사는 반달가슴곰 암컷의 평균 행동반경이 수컷보다 넓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11일 구례 지리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반달가슴곰 복원 발전 방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반달곰 행동반경 분석결과에 따르면 암컷 반달곰의 평균 행동권역은 130.42km로 수컷(105.25km)보다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곰의 동면 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면기간은 평균 12월22일에 시작해 이듬해 평균 3월28일에 깨어나는 등 평균 97±17일로 분석됐다. 지리산에는 예초 알려진 것보다 5마리가 많은 22마리의 반달곰이 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1일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 자락에서 이병욱 환경부 차관과 엄홍우 공단 이사장, 서기동 구례군수,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신청사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는 1천950㎡ 부지에 자연적응 훈련장과 생태학습장 등을 갖췄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62개 마을 '절구통 동시 떡메치기' 기네스 도전... 11월 '제 14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누시 남평농협(조합장 김병원) 조합원들이 '62개 마을 전통 절구통 동시 떡메치기-대한민국 기네스 도전'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드들강 하중도 공원에서 펼쳐진 이날 '농업인 한마당 잔치'에는 조합원 2천여명이 참여했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초절전 귀뚜라미 거꾸로 냉난방기... 8월 100% 매출 돌파... 062) 252-2900

(주)골프세상에서 당신만을 위한 클럽을 만나보십시오... 11월 5일 OPEN... 062-385-0689